

광양 시민 식수원 수어댐 녹조 발생

8월 말부터 상류 중심 시작 시의회 “악취 등 불편…대책을” 수자원공 “녹조없는 곳서 취수”



녹조가 발생한 광양 수어댐. <광양시의회 제공>

광양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수어댐에 녹조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진상면 수어댐에서는 지난 8월 말부터 상류를 중심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녹조로 인해 악취까지 발생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978년 완공된 수어댐은 15만명에 달하는 광양시민의 식수원으로 주로 쓰이며 일부는 광양제철소 등 국가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수어댐에서는 올해 처음 전 수역에 걸쳐 녹조가 퍼진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어댐 녹조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녹조 현상이 지속되면 녹조의 독성으로 물고기와 수중생물이 죽는 등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고 식수원으로 하는 광양시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수자원공사는 즉시 녹조를 제거해 생태계와 식수원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수자원공사는 녹조가 고온, 부영양화, 정체된 수역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어댐 녹조현상 발생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어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녹조가 발생하자 취수탑에 조류 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하류 지역에서 취수하고 상류부터 농업용수를 흘려보내 녹조 제거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지난 7월 초 500mm의 비가 내린 이후 8월 말까지 거의 내리지 않아 녹조가 심해졌다”며 “현재 취수를 하는 곳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하류 쪽으로 식수로 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 생거복내 경로당·문덕면 회관 리모델링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 선정…14억 확보

보성군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특별 지원사업에 선정돼 1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특별 지원사업은 매년 전남 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상수원 및 수변지역 수질개선·주민복지증진·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자체 공모로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성군은 이번 지원사업에 총 4개 사업을 신청, 이 중 생거복내 경로당과 문덕면 마을회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군비 3억4100만원 포함 총사업비 17억9100만원을 들여 복내면과 문덕면의 경로

당 2개소를 개축하고, 7개소는 리모델링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곳 경로당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태양광 시설, 냉난방 시설 교체, 화장실·싱크대 교체, 고효율 창호 설치 등이 이뤄진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약이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인 ‘2050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국내 우주항공분야 최고 전문가들 한자리에

고흥서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오는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우주항공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산·학·연의 국내 우주·항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가 열렸다. <사진>

제27차를 맞이하는 이번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국민대 윤용현 교수를 비롯해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해 고흥군의 우주항공 관련 산업과 정책 현안을 토론했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우주·항공 관련 산업에서 주민친화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조화된 지자체의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강조됐다. 특히 기획연구용역 중인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의 시기 단축과 ‘시험·인증 지원센터’ 등 세부 콘텐츠 구성에 대한 의견들을 용역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권역을 보유한 고흥군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산업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고, 관련 기업의 R&D에서부터 제조 및 시험, 기술표준 인증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여수서 14~15일 동아시아 기후포럼

‘COP28 기후중심도시’ 여수에서 14일~15일 이틀간 ‘1.5℃ 세계와 동아시아 탄소중립’이라는 주제로 ‘2021 제8회 동아시아 기후포럼’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관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 화상회의로 복합 개최된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중·일 3개국 500여명이 참여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동향과 NGO단

체들의 활동 사례 공유를 통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한다.

첫째 날인 14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조용성 고려대 교수의 기조강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제안’이 이어지며, 둘째 날인 15일에는 환경분야 노벨상으로 평가되는 ‘2021년 골드만환경상’ 수상자인 히라타 키미코 기후네트워킹 동경사무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및 사례’, ‘기후위기와 해양생태계’ 등 다양한 사례발표와 포럼이 열린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한복 입으면 섬진강 기차마을 무료 입장

곡성군, 한복 문화주간 맞아 한복 패션쇼 퍼레이드 등 행사

곡성군이 한복 문화주간을 맞아 한복 문화 지역 거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곡성군은 ‘곡성에 한복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16·17·23·24·30·31일에는 섬진강기차마을에서 한복 패션쇼 퍼레이드를 연다.

곡성의 대표 이미지인 심정과 장미를 아름다운 한복에 담아낸다.

현장 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곡성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곡성읍 ‘6070청춘공작소’에서는 한복 문화주간인 11~17일 한복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한복 문화주간이 아닌 10월 한 달 매주 토요일에도 무료 대여행사를 이어간다.

한복을 입으면 섬진강기차마을에 무료로 입장할 수도 있다.

곡성이트빌리지 기차갤러리에서는 31일까지 한복 인형을 전시하고, 섬진강기차마을 후문 상



예쁜 한복을 차려 입은 모델이 곡성 도림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수리길과 뚝방마켓에서는 한복과 관련된 포토존 ‘한복로드’가 차려진다.

곡성군 관계자는 “다양한 한복 프로그램을 통

해 우리 옷 한복이 많은 사람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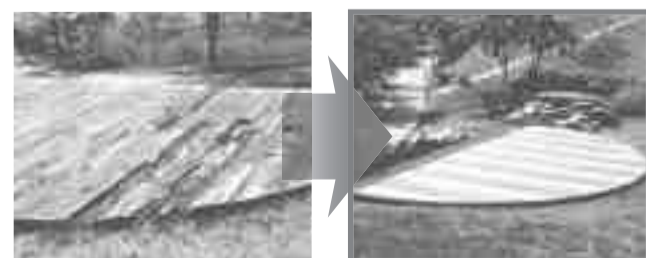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